



“4대 과기원 연합캠퍼스, 하원과 연계를”

<하원테크노캠퍼스>

임정은 의원, 위성산업 전주기 집적 필요성 강조
위 지사 “실현 가능성·입지 여건 등 종합 검토”

제주에서 추진되는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를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조성하고 연구와 산업 간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충문·예래동)은 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위성군 제주시지사를 상대로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의 조성 시점을 물으며 하원테크노캠퍼스와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임 의원은 위 지사를 상대로 먼저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의 조성 시기를 물었고, 이에 위성군 지사는 “올해부터 카이스트와 제주대학교가 협약에 따라 공동연구 체제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확대해 2030년도에 이를 확장할 생각”이라며 “정부에서도 그런 로드맵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이어 최근 위 지사가

우주산업 앵커기업들과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관련 기업과 기관, 연구 역량을 집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협력업체들도 희망하는 업체들은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입주해 인근 거리에서 우주산업 역량을 키우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같이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위성산업의 전주기를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집적하고,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의 연구 역량까지 결합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 지사는 임 의원의 제안에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를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우주산업을 클러스터 형태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위 지사는 “우주산업인 경우 한곳에 모이는 클러스터 형태를 추진해서 그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다”면서 “연합캠퍼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장 전경.

제주도의회 제공

퍼스와 하원테크노캠퍼스 연결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실현 가능성과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하원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도정질문에서 김항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은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 조성이나 위 지사가 추진해 온 제주국제과학기술원 설립 구상을 실제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거듭 확인했다.

김 의원은 제주 연합캠퍼스의 학생 규모와 운영 방향에 이어 정부

의 관련 추진 상황을 확인하며 위 지사의 추진 의지를 재차 물었다.

이에 위 지사는 “앞으로 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나 제주국제과학기술원인 경우 학부나 석사 과정을 없는 박사 과정과 박사후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경쟁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 조성을 위한 기획연구비 10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김민석 민주당 대표 “현실 가능한 개헌 추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헌법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 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6·9일 프랑스 국민 방문 전 진행한 일간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잘 분배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대표가 연설에서 개헌을 주장한 것에 대해 “5·18과 부마항쟁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본심은 ‘권력구조 개편’ 일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 개헌’이 그 ‘선’이라고 우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본격 추진

도, 도민 건강수요·지역 의료여건 반영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보건의료와 감염병 대응, 건강증진, 정신건강 등 앞으로 4년간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의 큰 틀을 설계한다.

제주도는 도민의 건강수요와 지역 의료여건을 반영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9기 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 성과와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지역 보건의료 수준과 수요 특성, 자원 현황과 정책 여건 등을 분석해 제9기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유

관기관·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추진할 비전과 전략, 연차별 세부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이달부터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전담팀’을 구성·운영한다. 전담팀은 제8기 계획성과평가와 개선사항 반영, 제9기 비전·전략 및 추진과제 설정, 보건의료정책 발굴,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유관기관·단체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맡는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문안공로에서

노인복지, 아프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

제주에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는 더 이상 아픈 뒤에 지원하는 정책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만성 질환과 치매, 돌봄 부담이 함께 커지는만큼 위험을 더 일찍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연결하는 예방 중심 복지로 전환해야 할 때다.

노인복지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사업을 새로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연결했는가’로 판단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제주 전역의 474개 경로당이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공간이자, 예방복지를 시작하기에 가장 현실적인 기반이다. 이제 경로당을 단순한 쉼

경로당 ‘생활복지 거점’으로 예방 중심 노인복지로 전환을 기억돌봄센터 연계 체계 필요

터가 아니라 건강관리와 식사, 운동, 인지교육, 사회활동이 함께 이뤄지는 ‘생활복지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 5일 프로그램, 건강한 식사, 보건소 연계 건강관리, 권역별 전담인력을 결합하면 새 시설을 늘리지 않고도 예방복지 체계를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

특히 치매정책은 더 이른 단계에서 시작해야 한다. 제주에는 경도인지장애로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이 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도인지장애는 정상 노화와 치매 사이에 놓인 중요한 단계다. 일부 전문 임상 연구에서는 1년 안에 약 10~15%가 치매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반면 인지훈련과 운동, 영양관리 같은 비약물적 중재를 시행한 메타분석에서는 경도인지장애에 또는 치매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김 경 애
제주도의회 의원

험이 27% 낮아졌고, 민감도 분석에서는 34%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런던 알츠하이머협회 국제학술대회에서도 14개 국가·지역을 분석한 결과, 치매 위험요인은 나라마다 달랐고 한국에서는 ‘낮은 교육 수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주 실정에 맞는 인지교육과 예방전략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이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부터 인지훈련과 운동, 영양관리, 사회활동을 꾸준히 제공하는 기억돌봄센터다. 경로당에서 위험신호를 발견하고, 기억돌봄센터와 치매안심센터, 보건소로 연결할 수 있다면 치매가 된 뒤에야 돌보는 체계를 넘어 치매로 진행되는 시간을 늦추는 예방체계를 만들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공간이나 검토에 머무르지 않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다. 경로당과 기억돌봄센터를 잇는 예방 중심 노인복지 모델을 어떤 사업과 예산으로 만들 것인지, 경도인지장애에 어르신을 어떤 체계로 지속 관리할 것인지 분명한 답이 나와야 한다. 초고령사회의 속도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필요한 예산과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이 과제가 실제 정책으로 제주 어르신의 삶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살피겠다. 노인복지의 아픈 뒤에 시작하는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 아프기 전에 찾아내고, 연결하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초고령 제주가 이제 선택해야 할 노인복지의 기준이다.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Salm yook 제주도총판 대표 윤 봉실
064)757-1416

그랜드보청기

한가위 고객감사 大축제 물가안정 이벤트
① 50%특별할인 ② 15만원 상당 UV전자 습기제거제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4 HANJIN HITECH 히트브랜드 대상 2위

충진형 귀속형 보청기 충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샴촌들 훈제 전하 주셔서! 기다렸수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 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겹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메이플

서사라 사거리 그랜드보청기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가구

썩크대 제작 / 불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맛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